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 자원에 따른 군집과 고교진학 유형 차이 분석*

박송주** · 이보라***

초 목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청소년을 이들이 지닌 심리사회적 자원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보고 유형별 고교진학 양상을 탐색함으로써 이들의 진로발달에 적합한 조력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의 6차와 7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다문화청소년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유형화를 위해 군집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개인 및 미시체계의 심리사회적 자원을 요인으로 선정하여 총 세 개의 집단(자원 결핍 집단, 자원 적정 집단, 자원 풍족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 중 자원 적정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진학 양상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원 풍족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일반고 진학률을 보였고, 세 집단 중 특목고 진학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개인 및 미시체계의 상호작용이 부적으로 나타난 자원 결핍 집단은 특성화고 진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고 진학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자원에 있어 개인 요인과 더불어 맥락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사회 전반적인 자원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집단 내 차이에 주목하였을 시 유형별 필요를 파악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며 단순히 정보 제공에서 그치는 진로교육이 아닌 이들의 자아정체성 성립을 통한 추후 진로지원의 실천적 방향을 제안한다.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고교진학 유형, 심리사회적 자원, 생태체계 접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NRF-2017S1A5A2A03068451).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boralee117@korea.ac.kr

I. 서 론

현재 우리는 방송 등 대중매체와 학교와 같은 일상 생활반경에서 어렵지 않게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만날 수 있으며 이들의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47,378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2년 46,954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재학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통계가 보고되는데,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교육기본통계, 2020).

청소년기는 극적인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심리, 정서 및 정신적 성숙을 개인 내적으로 또는 사회관계 속에서 경험을 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심리사회적응은 이후의 건강한 진로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청소년기 발달로 인한 일반적인 변화 외에도 환경과 문화 차이로부터 발현되는 심리적 불안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오인수, 2014). 개인적인 변화에 더하여서 애초에 변화할 수 없는 배경적 차이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에 따른 접근과는 다른 이해와 개입이 요구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2020)에서 보고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현황 기초 분석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긍정적 적응 변인인 삶의 만족도와 신체만족도, 또는 학업 성취 만족도는 낮아졌고, 부정적 변인인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정도는 높아졌다. 국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교적응 관련 가장 큰 고민으로는 학업과 진로 문제가 거론되는데(이창호, 송민지, 2013),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과정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이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성자, 김순미, 이현림, 2008). 게다가 문화 차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이러한 진로문제를 직면했을 시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고된다(조봉환, 2011). 실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진로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심리적응 지원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아지는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이는 국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성장에 따른 변화에 반응하는 진로 교육 및 개입에 대한 필요를 시사한다.

Erikson(1968)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발달과업으로 자신이 누구이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 존재에 대해 고민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해나간다고 한다(이은경, 신아라, 김선경, 이웅택, 2017 재인용). 한 사람의 진로가 전생애적으로 발달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청소년기의 진로선택은 이들의 미래의 삶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진로에 대한 다양한 숙고와 선택과정을 통해 진로정체감을 확립시키며 자라나고, 이는 성인기로의 온전한 성장을 이어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Skorikov & Vondracek, 1998). 나아가 한 개인의 성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Bronfenbrenner, 1979) 청소년기 정체성 및 진로 발달은 청소년들이 속한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등 실제 생활환경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확실히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면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며 일차적인 진로결정을 내리게 된다.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은 이후 진로선택 또는 선택에 따른 진로결과로 직업지위, 연봉, 직업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이수용, 이은수, 홍세희, 2016) 이 때 고등학교의 계열화로 인한 기회의 불균형은 우리사회에서 꾸준히 회자되어 왔다. 국내 연구결과로도 고교 유형 선택은 특히 성인기 사회적 지위 획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안선영, 이경상, 2009). 이처럼 고등학교 진학 유형 선택은 이들의 미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미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이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맥락적 요인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했는데(공윤정, 2014; Lent, Brown & Hackett, 2000; Raque-Bogdan, Klingaman, Martin & Lucas, 2013), 고등학교 진학 유형 또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개인적 및 맥락적 요인 발달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부모의 정보 부족, 문화정체성 혼란, 차별, 학업부적응 등 취약한 진로발달을 경험하는 다문화청소년(류성창, 김재우, 이윤옥, 2016; 박하나, 조영달, 박윤경, 2013)에게 고등학교 진학 유형 선택이 추후 성인기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비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것 보다 비교적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들이 마주한 취약한 진로발달 현황과 고등학교 진학 유형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학교 3학년 다문화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진학 양상을 탐색 할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에 있어서 각 요인 별 접근

이 아닌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다양한 맥락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고등학교 진학 유형을 탐색하기에 앞서 궁극적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사회적 자원을 개인 및 맥락적 요인 모두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유형을 나누어 보고, 유형 별 고등학교 진학 양상이 어떠한지 탐색하여 진로교육 개입 방안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발달 관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심리사회적응을 나타내는 개인 및 맥락적 자원을 통합한 기준으로 유형을 나눠보고, 각 유형의 청소년들이 어떤 계열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 Bronfenbrenner의 생태 체계적 관점(ecological-systems perspectives)을 사용하고자 한다. Bronfenbrenner(1979)는 한 개인과, 그 개인이 처한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겼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 인간발달이라 정의한다. 이는 한 개인을 자신이 처한 환경 각각의 장면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 서로 간의 역동을 통해 하나의 더 큰 장면으로 개념화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이론에서의 생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순으로 동심원적 구조로 표현이 가능하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한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인간발달을 충분히 설명한다(김현숙, 2011). 상당한 부분의 청소년 진로발달 연구는 가정 또는 학교 장면에서의 요인들을 다루고 있다. 생태체계적 관점을 취하여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진로발달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는 맥락 외에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 및 다문화적 특징과 함께 통합적인 관점을 반영하였다.

2. 다문화 청소년 개인적 특성과 진로결정

다문화 청소년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문화를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 및 생활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정하성, 우룡, 2007). 따라서 이들의 특징적 요인으로 국가정체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고려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정체감은 진로 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며(Skorikov & Vondracek, 1998; 조명실, 최경숙, 2007), 특히 국내 중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진로정체감의 발달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아정체감의 증가가 필요하다(이은경 외, 2017). 발달 이론에 따르면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 형성에 있어 국적국가와 같은 거시적인 특징 또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Hartung, Porfeli & Vondracek, 2005) 국가정체성과 같은 특징적 요인이 다문화 청소년의 특이점이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진로발달 연구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부모의 각기 다른 문화를 보고 배우며 성장하는데, 이 때 이들은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환경에서 다문화적 특성을 발달시킨다. 신체, 심리, 그리고 정서적 발달을 이중문화 배경에서 경험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단일문화 배경을 가진 비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청소년기 변화보다 한 층 더 복잡한 과정을 지나는데(오경화, 2011), 이에 따라 정체성 형성에 전반적인 발달로 인한 변화에 있어서 비다문화 청소년들 보다 더 많은 혼란을 경험 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주요 발달과업으로 수행하는 진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은 이들의 다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게 되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거나, 가치관 차이로부터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으로 비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지 않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Storlie, Chan & Vess, 2019).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행연구에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더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논의되었다(Franco, Hsiao, Gnllka & Ashby, 2019). 이렇듯 국가정체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요인으로, 이들을 이해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단순한 정보부족 부터 자기이해 및 불안, 부담감, 진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진로준비행동을 지연시키는

심리적 진로장벽 요인을 호소한다(이아라, 이주영, 손보영, 2018).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을 사용하여 진행 된 연구에서는 긍정적 작용 시 대개 진로발달을 촉진하고, 반대의 경우 지연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국내 청소년 진로발달 영역에서 자주 연구되며 본 연구에서 또한 다문화 청소년을 분류함에 있어 유의미한 요인으로 고려했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인 요인으로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수준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은 모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즉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이재희, 이경상, 2018). 다음으로 청소년기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반대되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청소년기에 경험한 높은 우울 수준이 진로결정 발달과업 이행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된다(전혜숙, 김진영, 전종설, 2019; 석민경, 조한익, 2016). 이와 같이 청소년기 발달과 맞닿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 유형을 탐색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다문화 청소년 진로발달의 맥락적 요인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이들이 속한 환경 내 지지집단의 역할이 크다. 가정배경 요인인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와 더불어 교사지지와 친구지지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정(+)의 관계에 있다(김종선, 2015). 또한,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를 활용한 학교맥락 연구에 의하면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생이 더 긍정적인 진로결정 수행을 보고한다(전혜숙 외,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초·중학교 전환시점을 살펴본 몇몇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학교, 가정으로부터 받는 지지 모두 긍정적인 진로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는 학교적응과 초기 학업성취의 변화, 전환기에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고(박용한, 이신동, 2017), 더 많은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를 경험하는 다문화청소년은 더 높은 학교적응력을 보였다(이윤호, 2009). 긍정적인 친구관계는 낮은 학교 부적응을 보고하며(장덕희, 신효선, 2010) 학교장면에서 친구관계 및 지지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학업성취도는 학생의 진로발달을 예측하

는 요인인데,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양계민, 강경균, 김주영, 2017). 이들은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취학률이 낮은 편이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많은 경우는 또래와 선생님과의 관계로 인해 중단하는 것을 보아(장임숙, 김희재, 2013)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맥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본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개인, 가정, 학교 수준의 요인들의 관계를 군집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을 때, 가정과 학교환경이 다문화청소년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천희영, 이미란, 2015). 현재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가정 및 학교와 같은 배경에 비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의 전환기를 살펴본 연구 또한 부족하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적 접근을 바탕으로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요인을 추가하여 중·고등학교 전환기를 지나는 중학교 3학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4. 고등학교 진학의 의미

국내 청소년들은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의 학업을 끝으로 고교 진학여부 및 학교계열을 선택할 수 있다. 고교 계열화 및 평준화에 대한 논의는 국내 교육 분야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과 결과에 많은 국민의 관심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고교 진학과정 중 학교계열 선택의 중요성을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진로에서의 기회의 제약을 처음으로 ‘두드러지게’ 겪는 시점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환 시기를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고교진학 시 계열을 선택한 이후에는 계열 간 이동이 어렵고, 계열 간 경험하는 교육 또한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안선영, 이경상, 2009). 한 연구에서 대학 고등교육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서열을 분석해 본 결과 재학했던 고등학교의 계열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써 중등교육에서 경험하는 교육에 의해

이후 서열이 결정된다고 시사할 수 있다(방하남, 김기현, 2002). 일반고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지금의 특성화고와 같은 전문고로 진학하는 학생들보다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이고, 추후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안선영, 장원섭, 2009). 고교 계열화 현상은 특성화고와 일반고 외에도 특목고, 자율고를 통틀어 발생하는 것인데, 국내 명문대학이라 칭하는 대학의 학교 유형별 고3 학생수 대비 합격자 비율을 보았을 때, 특목고와 자율고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고교유형선택이 이후 진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에듀진, 2020). 이로써 청소년들은 고교 선택을 시작으로 이후의 대학진학과 직업세계에서 개인간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 국내 노동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특히 다른 4년제 대학보다도 상위 10위권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들의 상대임금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고은미, 2011)을 통해 고교유형선택이 이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또, 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졸자가 고졸자 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임금, 더 많은 직업의 유동성(mobility), 더 다양한 여가활동 등 전반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Porter, 2002). 따라서 고등학교 이후의 직업세계에서도 특목고, 자율고, 혹은 일반고에 진학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더 우세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지금은 표면적으로 계열화가 폐지되고 고교평준화가 지역별로 도입되면서 또 다른 시사점들이 나타나지만, 이러한 제도들의 설립 및 폐지 과정은 결과적으로 청소년기 고교 계열 선택에 따라 성인기 진로발달의 양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고교진학 유형 그리고 효과적인 진로발달 개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다문화청소년 중학교 3학년 개인적 특징과 심리사회적 자원 측정 자료를 사용하여 생태체계적 접근, 즉 통합적 관점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유형의 고등학교 진학 양상을 탐색하여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 설계 및 개입의 필요성을 구체화 시키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청소년 패널(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패널데이터는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표본으로, 2011년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축되었다. 데이터의 표본추출단위는 다문화청소년 중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 추출된 학교에서 대상 학생을 전수조사 하는 방식으로 표본 추출을 진행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본 연구에서는 6차년도(2016년)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청소년 1,6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표본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변수에 모두 응답하고 7차년도(2017년)에 고등학교 진학 유형에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최종표본은 총 1,255명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집단에서 남자는 614명(48.9%), 여자는 641명(51.1%)으로 이루어져 있고, 752명(59.92%)의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했고, 다음으로 357명(28.45%)의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진학했다. 그 외 65명(5.18%)의 학생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64명(5.10%)의 학생들은 자율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 특성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614	48.9
	여자	641	51.1
고등학교진학유형	일반고	752	59.9
	특수목적고	65	5.2
	특성화고	357	28.4
	자율고	64	5.1
	기타	13	1.0
	미정(중학교 재학)	4	.3

2. 측정변수

1) 다문화관련 요인

(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총 10문항으로 산출되었고, Hovey & King(1996)의 SAFE(Scale for Adolescents) 척도를 변안한 노충래(2000)의 자료를 재수정한 홍진주(2004)의 문항을 사용했다. “외국인 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등의 문항에 Likert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722로 나타났다.

(2) 국가정체성

성한기(2001)의 한국관 사회정체화 척도 재수정 문항으로 총 4개의 문항을 사용했고, Likert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내적합치도는 .890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인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이 더 성립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개인 요인

(1) 자아존중감

군집분석에 사용된 자아존중감 변인은 Coopersmith가 개발, 오전영(1981)의 변안, 그리고 박난숙, 오경자(1992)의 재사용을 거친 총 4문항이 사용되었다. Likert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된다. 문항 내적 합치도는 .833으로 나타났다.

(2) 우울

개인요인으로 사용된 우울 변인은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를 수정한 이경상 외(2011)의 자료를 사용했다. 총 10개의 Likert 4점 척도(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03으로 나타났다. Likert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높은 점수일수록 더 높은 우울감을 나타낸다.

3) 환경 요인

(1) 친구의 지지

군집분석 시 환경요인 변인으로 사용한 친구의지지 변인은 평소 친구들의 행동에 관련된 항목이며, 한미현(1996)의 사회적지지 지각 척도 중 3개 문항을 사용했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등 응답자의 주관적 견해를 표현하는 문항에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큰 지지를 의미한다.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946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2) 교우관계

평소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교우관계 변인은 민병수(1991)와 정화실(2009)을 수정한 김지영(2010)의 교우관계 5문항을 사용했다. “놀이나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등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을 나타내는 문항을 포함하여 Likert 4점(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 관계에서 높은 적응을 나타내며, 문항들의 내적합치도는 .627이다.

(3) 교사의 지지

평소 담임선생님과 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경험에서 인지된 주관적 견해를 묻는 항목으로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현(1996)의 사회적지지 지각 척도 중 3개의 문항을 사용했고, 문항 내적합치도는 .922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높은 점수 일수록 교사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교사와의 관계

평소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현상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등 총 5개의 문항, Likert 4점(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887의 내적합치도를 보인다. 민병수(1991)를 사용한 정화실(2009)의 문항을 재수정한 김지경(2010)의 학교적응 척도 중 교사관계 항목을 사용하였고, 높은 점수 일수록 더 나은 관계로 해석된다.

(5) 부모님의 지지

Hernandez(1993)의 학업관련 사회적지지 문항을 보완한 김순규(2001) 부모의 교육적 지원 및 기대 척도를 사용하여 총 6항목으로 산출됐다. Likert 4점(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적 지지와 기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문항 내적합치도는 .899이다.

(6) 거주지역 인식

ADD health(2009)의 문항을 번안 및 수정한 김지경 외(2010)의 총 6항목을 사용하여 평소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측정했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의 5문항에 Likert 4점(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척도로, 높은 점수 일수록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이 더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항 내적합치도는 .750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대한 영향요인에 따른 군집들의 유형을 알아보고, 각 군집 별로 고등학교 진학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PS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 및 환경적 요인에 따라 나뉘는 유형을 탐색하기 위해 2단계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했다(Hair & Black, 2000). 1단계로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에서 Wards방법을 실시하였고, 2단계로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이 방법은 계층적 군집분석만을 사용할 때 보다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시 군집형성 과정에서 이탈정도가 큰 사례들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김경은, 김은아, 김성희, 2014). 셋째, 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각 군집 별 상급학교 진학 유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교차분석) 검정을 실시했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변수간 상관관계는 표 2 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에서 왜도의 절대값은 2 미만, 첨도의 절대값은 4 미만으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ong, Malik & Lee, 2003).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다문화 요인을 나타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r=.302,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나머지 변수들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국가정체성은 우울($r=-.203, p<.001$), 문화적응스트레스($r=-.160, p<.0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나머지 변수들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

주요 변수 기술통계와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문화적응스트레스	1									
2.국가정체성	-.160***	1								
3.자아존중감	-.256***	.322***	1							
4.우울	.302***	-.203***	-.440***	1						
5.친구의 지지	-.317***	.328***	.528***	-.340***	1					
6.교우관계	-.332***	.339***	.505***	-.399***	.583***	1				
7.교사의 지지	-.256***	.364***	.443***	-.274***	.588***	.462***	1			
8.교사와의 관계	-.195***	.342***	.433***	-.325***	.468***	.477***	.643***	1		
9.부모님의 지지	-.253***	.294***	.470***	-.384***	.442***	.488***	.403***	.422***	1	
10.거주 지역 인식	-.204***	.293***	.319***	-.329***	.304***	.380***	.304***	.341***	.332***	1
평균	1.40	2.83	3.15	1.70	4.04	3.18	3.86	3.10	3.19	2.94
표준편차	0.31	0.65	0.55	0.53	0.78	0.37	0.82	0.56	0.48	0.49
왜도	1.24	-0.42	-0.12	0.37	-0.55	0.25	-0.31	-0.29	0.01	0.03
첨도	1.31	0.52	-0.02	-0.40	0.23	0.26	-0.16	0.53	0.38	0.52

*** $p < .001$

개인 특성을 나타내는 자아존중감 또한 우울($r = -.440$, $p < .001$)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고, 기타 사회관계적 요인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우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나머지 사회관계관련 변수들은 서로 모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2. 군집분석 결과

다문화청소년 진로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다문화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을 바탕으로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군집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확인하고자 중학교 3학년 재학 시기 및 고등학교 1학년 진학 학교유형에 모두 응답한 1,255명 학생을 대상으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 방법은 1단계 위계적 군집분석으로 군집화한 결과를 가지고 가장 적절한 군집의 수를 정한 뒤 2단계 비위계적 분석에서 해당 군집

수를 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이다(Hair&Black, 2000). 먼저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를 실시하였고, 투입된 변인은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자아존중감, 우울, 친구의지지, 교우관계, 교사의지지, 교사와의 관계, 부모님의 지지, 거주 지역 인식이었다. 모든 변인들을 일정한 단위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점수(z점수)를 사용하였고, Ward의 군집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위계적 군집화 과정을 설명하는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통해 3~4개 군집으로의 분류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4개의 군집일 경우 군집 간 사례 수의 분포차가 3개의 군집일 경우 사례 수의 분포보다 비교적 불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다문화 청소년 관련 이론적 배경을 더하여 해석해 보았을 때 더 의미 있는 설명이 가능한 3개의 군집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1단계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군집수를 3으로 설정하여 2단계 비위계적 방법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군집 중심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 군집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수준이 전체 세 개의 군집 중 가장 높게 나왔고, 국가정체성과 자아존중감에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다. 미시체계(microsystem)에 속하는 친구, 교사, 부모 및 이웃에 대한 인식 또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군집에 속한 학생들은 전체의 약 25.5% (320명)를 이루고 있는데 개인 특성과 더불어 미시체계의 관계에서 개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결핍된 것으로 보아, ‘자원 결핍’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두 번째 군집은 다문화적 특징을 나타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이 평균에 가까운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그 외 자아존중감과 우울 또한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미시체계 내 관계에서도 비교적 평균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 군집은 약 45.7% (573명)를 이루고 있어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평균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각 변수의 최종 중심점이 평균에서 심하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자원 적정’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3은 나머지 두 군집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 점수는 현저히 낮게 나타나 세 집단 중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가장 우울하지 않은 집단으로 해석된다. 그 외 자아존중감과 국가정체성, 교우관계, 교사의지지 등의 개인 및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 변인에서는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 즉, 미시체계에 속하는 또래, 교사, 부모,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군집 3은 전체 수의 약

28.8%(362명)를 이루고 있었다. 높은 관계성과 긍정적인 개인 요인의 값을 종합하여 군집 3은 ‘자원 풍족’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림 1은 세 군집을 주요 변인들의 최종 군집중심점을 사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3

다문화청소년 표본의 심리사회적 자원에 따른 최종 군집중심

변수	군집 ¹⁾ (N=1255, 100%)		
	1 (n=320, 25.5%)	2 (n=573, 45.7%)	3 (n=362, 28.8%)
문화적응 스트레스	0.83	-0.19	-0.48
국가정체성	-0.59	-0.05	0.63
자아존중감	-0.82	-0.14	0.98
우울	0.84	-0.08	-0.68
친구의 지지	-0.97	0.01	0.92
교우관계	-0.81	-0.15	1.00
교사의 지지	-0.85	-0.12	0.95
교사와의 관계	-0.76	-0.18	0.95
부모님의 지지	-0.75	-0.13	0.87
거주지역인식	-0.48	-0.12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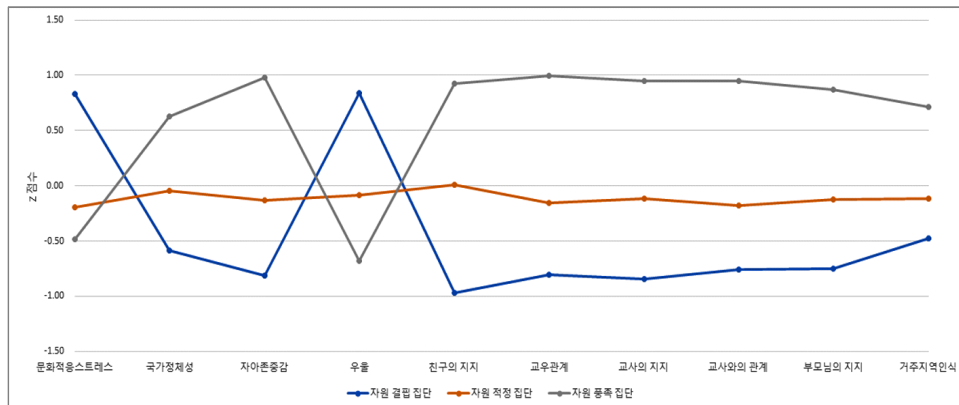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청소년 군집 프로파일

- 1) 군집 개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50% 무선표집 하여 동일하게 세 군집으로 나누어 전체 표본 군집분석과 무선표집 군집분석 결과를 가지고 교차분석을 진행하여 코헨의 카파 계수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일치도를 보였다($K=.95, p<.001$).

3. 군집별 고등학교 진학유형 차이 검증

다문화 청소년의 군집 유형의 타당성 및 군집 별 고등학교 진학 유형의 비율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시행하였다. 군집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유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바 군집 별 고교 진학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0, N=1255)=27.163, p=.002$). 다문화 청소년 군집 별 고등학교 진학 유형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군집 별 가장 높은 비율로 산출 된 첫 세 고등학교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이 가장 높고, 미시체계 지지가 가장 낮았던 자원 결핍 집단은 일반고 178명(55.6%), 특성화고 115명(35.9%), 자율고 13명(4.1%)의 진학률을 보였다. 자원 적정 집단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경험과 더불어 미시체계와의 균형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 경험 또한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경험한 집단이며, 해당 집단에서는 일반고 347명(60.6%), 특성화고 162명(28.3%), 자율고 29명(5.1%)의 진학률이 산출되었다. 사회관계적지지가 가장 높게 측정 된 자원 풍족 집단은 일반고 227명(62.7%), 특성화고 80명(22.1%), 특목고 26명 (8.3%)의 진학유형을 나타내며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특목고 진학률이 높았다.

전체 표본에 대한 고교 진학 유형을 살펴봤을 때, 국내 다문화청소년들의 약 60%가 일반고에 진학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자원 결핍 집단은 전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일반고 진학률(55.6%)을 보였고, 이는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반면에 특성화고 진학률은 35.9%로 전체 평균 28.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모든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 특목고(2.8%)와 자율고(4.1%) 진학은 일반고 진학률과 마찬가지로 전체 특목고 평균 진학률(5.2%)과 자율고 평균 진학률(5.1%)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원 적정 집단의 경우 가장 많은 학생이 속하여 있는 집단으로 모든 진학유형의 비율이 전체 평균과 다소 흡사한 패턴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원 풍족 집단에서는 세 집단 중 일반고(62.7%), 특목고(8.3%), 그리고 자율고(6.1%)에 가장 높은 진학률을 보였고, 이는 일반고 전체 평균 진학률(59.9%), 특목고(5.2%), 그리고 자율고(5.1%)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나머지 두 집단보다 높은 진학률을 보였다. 또, 표 4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MAPS의 7차(2017) 자료와 동일한 시점의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생 수를 함께 볼 수 있다. 2017년도 기

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다문화 학생의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유형 비율(59.9%)은 전체 학생 대상 자료의 일반계 진학 비율(71.5%)보다 적다. 반면, 특성화고 진학률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표본이 28.4%, 국내 고등학교 진학생 모집단이 16.4%를 보이며 다문화 청소년 표본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진학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표 4

군집별 고교 진학유형 차이

		고등학교 진학 유형 ²⁾						전체	χ^2	p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기타	미정			
생태체계 유형별 군집	자원 결핍 집단	178(55.6)	9(2.8)	115(35.9)	13(4.1)	4(1.3)	1(0.3)	320(100.0)	27.163**	0.002
	자원 적정 집단	347(60.6)	26(4.5)	162(28.3)	29(5.1)	6(1.0)	3(0.5)	573(100.0)		
	자원 풍족 집단	227(62.7)	30(8.3)	80(22.1)	22(6.1)	3(0.8)	0(0.0)	362(100.0)		
전체 샘플		752(59.9)	65(5.2)	357(28.4)	64(5.1)	13(1.0)	4(0.3)	1255(100.0)		
국내 전체 고교 유형 별	2017년도 진학생 수	1,193,562 (71.5)	67,960 (4.1)	274,281 (16.4)	133,896 (8.0)					

주. 2017년도 우리나라 고교유형별 진학생수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생산한 교육통계 연보를 참고하여 기입하였음.

** $p < .01$

V.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적 특징을 포함한 심리사회 특성자료를 활용하여 유형화 해보고, 각 유형별 고등학교 진학 양상을 탐색하여 이들을 좀 더 통합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알맞은 조력 방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청소년 패널연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의 6차년도 중학교 3학년 재학생 1,255명의 개인 및 배경 특징적 요인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자아존중감, 우울에 이어 심리사회적 변인 중 생태체계의 맥락을 고려한 부모, 학교,

2) 표 내용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백분율(%)을 나타낸다.

지역사회 관련 요인인 친구의 지지, 교우관계, 교사의 지지, 교사와의 관계, 부모님의 지지, 거주지역인식의 측정 자료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총 세 개 군집이 발견되었다.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원 풍족 집단은 개인의 다문화 적응 및 정서적 안녕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미시체계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모두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 적정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은 다문화 배경에 대한 적응도나 개인 정서 수준이 전체 평균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자원 적정 집단에 가장 많은 수의 청소년이 속했다. 마지막으로 자원 결핍 집단에 속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자아존중감이 현저히 낮고, 우울은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점수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 미시체계와의 경험이 매우 부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데, 특히 학교 배경에서의 심리사회적 자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진학 유형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보았을 때, 과거 전문고등학교와 유사한 특성화고를 제외한 모든 고교 유형(일반고, 특목고, 자율고)은 자원 풍족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자원 적정 집단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 결핍 집단의 순으로 진학률을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 적응을 포함한 개인적 요인, 나아가 미시체계 맥락에서 지닌 심리사회적 요인에서 모두 높은 상관을 보였고, 군집분석 결과로도 개인으로부터 파생된 요인 외에 외부 체계와의 관계성이 부(-)적이거나 정(+)적인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미시체계와 원활할수록 일반고진학률이 높고 심지어 특목고 진학률 또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데,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및 학부모가 호소하는 진로지원 문제에 접목하여 통합적이며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다문화 청소년 진로결정 영향요인을 통합하여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이들의 다문화적 특징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정체성 혼란은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torlea et al., 2019; Franco et al., 2019).

본 연구에서 나뉜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낮은 정체감을 경험하는 집단의 고등학교 선택 유형을 보면, 비교적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로 특성화고에, 낮은 비율로 일반고에 진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교진학유형 결정 요인 연구에서 성취, 포부, 동기 및 태도 수준이 높을

시, 즉 진로결정성이 높을 시, 청소년들은 일반계열 고등학교를 선택할 확률이 높고, 반대의 경우 전문계고를 더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보고를 지지한다(김경근, 변수용, 2006; 심현애, 김경연, 2014). 나아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체감과 같은 다문화적 특징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태체계 속 개인과 맥락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면, 다문화 청소년들 중 풍족한 자원이 있는 체계 속에서 발달할수록 일반계열 또는 특목고 계열로 진학할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추후 진로발달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진로발달 연구에서 다소 주목 받지 못했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각의 요인이 아닌 통합적인 관점으로 생태체계를 살펴본 것, 나아가 청소년기 주요 진로결정인 상급학교 진학 유형선택에 있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 지 탐색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주관적인 지표로 개인이 실제 생태체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측정한다. 즉,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다문화 배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미시체계와의 실제 상호작용 상태를 나타내며 추후 진로지원에 있어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연구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다문화청소년에게는 개인 요인뿐만 아니라 맥락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사회 전반적으로 진로 자원이 구축 될 필요가 있다. 매체 및 교육현장에서 다문화가정이 노출되고 관련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청소년 개인이 경험하는 미시체계에서는 집단내 차이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다문화청소년들과의 차이, 즉 집단 간 차이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문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필요로 하는 지원체계가 서로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더 나은 체계 및 진로발달을 위해 개인의 미시체계에 있는 배경(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생 개인이 어떤 체계 속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맞춤형 개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다문화 청소년 개인수준으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고 국가정체성 형성을 도모하는 지원이 이들의 진로발달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정보전달에 그치는 진로 지원보다 다문화 청소년 한 개인이 다문화적 배경을 수용하고, 그에 적응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한다면 이후 자기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나가는 데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한 추후 연구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MAPS의 6차년도(2016) 중학교 3학년의 자기보고식 자료 중 심리사회적응관련 자원만을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진로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 부모학력 및 거주 지역 규모와 같은 객관성을 띠는 맥락과 함께 이들의 초기진로결정에 있어 더 확장된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가정과 학교에서는 발달시기에 맞는 적절한 개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정책적으로는 학교 수나 학생 수 등을 미리 예측하여 그에 맞는 학교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2년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는 하였지만, 분석방법의 특성상 생태체계유형과 진학교육유형의 관계는 경향성일 뿐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는 개별 중요변인에 대해 추리 통계가 가능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활용해 진학교육유형을 더 섬세하게 예측하는 모형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다문화가정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다문화가정 청소년 집단 또한 함께 비교한다면 비교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학생이라는 차별성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요구와 더 일치하는 정책적 개입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은미 (2011). 1999~2008년 한국에서 대졸자 간 임금격차의 변화. **노동경제논집**, 34(1), 103-138.
- 공운정 (2005). 진로장벽: 이론적 고찰 및 상담 실제에의 적용. **상담학연구**, 6(3), 861-874.
- 교육부 (2020). **2020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세종: 교육부.
- 김경근, 변수용 (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 1-27.
- 김경은, 김은아, 김성희 (2014). 군집분석을 이용한 아동의 창의적 사고유형 분석. **아동학회지**, 35(2), 103-115. doi:10.5723/kjcs.2014.35.2.103
- 김성자, 김순미, 이현립. (2008). 진로의사결정 집단상담이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6(1), 1-14. doi:10.35151/kyci.2008.16.1.001
- 김종선 (201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숙 (2011).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른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사회정서적, 인지적 발달 영향요인: 여성한부모와 양부모 자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4), 175-201.
- 류성창, 김재우, 이운옥 (2016). 다문화학생의 진로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요구. **교육문화연구**, 22(6), 451-481. doi:10.24159/joec.2016.22.6.451
- 박용한, 이신동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발달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1-19. doi:10.22327/kei.2017.35.4.001
- 박하나, 조영달, 박윤경 (2013).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6(1), 21-49.
- 방하남, 김기현 (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석민경, 조한익 (2016). 청소년의 불안/우울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및 갈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9(1), 1-23.
- 심현애, 김경연 (2014). 중학교 3학년생의 진학 고등학교 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등교육연구**, 62(4), 593-621. doi:10.25152/ser.2014.62.4.593

- 안선영, 이경상 (2009). 중등교육단계 청소년 진로 결정요인 및 결과: 고등학교 계열 선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 81-99.
- 안선영, 장원섭 (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 (KYPS) VII: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5.
- 양계민, 강경균, 김주영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02.
-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19).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20).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에듀진 (2020.07.06.) 작년 고3, 특목고 학생이 일반고보다 인서울 대학 4배 더 합격했다.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49>에서 2020년 5월 15일 인출.
- 오경화 (201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9), 83-97. doi:10.6115/khea.2011.49.9.083
- 오인수 (2014).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괴롭힘 피해 경험과 심리 문제의 관계: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Asian Journal of Education)**, 15.
- 이수용, 이은수, 홍세희 (2016). 청년기 진로발달 변화형태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원 성장 혼합 모형(Two-part Growth Mixture Model)의 적용.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 19(13), 137-162. doi:10.36907/krivet.2016.19.3.137
- 이아라, 이주영, 손보영 (2018).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25(11), 35-64. doi:10.21509/KJYS.2018.11.25.11.35
- 이윤희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애착,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경, 신아라, 김선경, 이웅택 (2017). 청소년기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종단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91-112.
- 이재희, 이경상 (2018). 부모지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6(1), 143-153.

- 이창호, 송민지 (20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In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pp. 1-80).
- 장덕희, 신호선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 연구**, 17(3), 123-147.
- 장임숙, 김희재 (2014).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60, 50-67.
- 전혜숙, 김진영, 전종설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영향요인. **청소년학 연구**, 26(10), 259-290. doi:10.21509/KJYS.2019.10.26.10.259
- 정하성, 우룡 (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87-88.
- 조명실, 최경숙 (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doi: 10.15703/kjc.8.3.200709.1085
- 조봉환(Bung-Hwan Cho) (201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습흥미와 진로발달. **진로 교육연구**, 24(2), 219-245.
- 천희영, 이미란 (2015).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의 유형화: 개인·가정환경·학교생활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95, 1-24.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doi:10.1037/0003-066x.34.10.844
- Franco, M., Hsiao, Y.-S., Gnllka, P. B., & Ashby, J. S. (2019).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Career Outcome Expectation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9(2), 275-291. doi:10.1007/s10775-018-9380-7
- Hair, J. F., Jr.,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rtung, P. J., Porfeli, E. J., & Vondracek, F. W. (2005).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3), 385-419. doi:10.1016/j.jvb.2004.05.006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doi:10.1037/0022-0167.47.1.36
- Porter, K. (2002). The Value of a College Degree. *ERIC Digest*.
- Raque-Bogdan, T. L., Klingaman, E. A., Martin, H. M., & Lucas, M. S. (2013).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and career barriers: An investigation of contextual variabl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1(4), 339-353. doi:10.1002/j.2161-0045.2013.00060.x
- Skorikov, V., & Vondracek, F. W. (1998). Vocational identity development: Its relationship to other identity domains and to overall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6(1), 13-35. doi:10.1177/106907279800600102
- Storlie, C. A., Chan, C. D., & Vess, L. (2019). Examining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Diverse Youth Through the Future Career Autobiography.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Counseling*, 5(2), 189-203. doi:10.1080/23727810.2019.1609837

ABSTRACT

The socio-relational pattern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school transition

Park, Soungjuu* · Lee, Bora**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attending 3rd year middle school in Korea using the ecological systems approach and to then explore the nature of their transition to high school. The 6th and the 7th wave data taken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were used. The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using individual and socio-relational factors in microsystem showed a total of three groups (a resource deficiency group, an adequate resource group, and a resource-rich group). The adequate resource group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School transi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the highest percentage of general high school entrance rates were in the resource-rich group while the resource deficient group showed the highest rate of admission to vocational high schools, and general high school entrance rates were at a significantly low rate.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number of practical directions for further career guidance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are needed.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types of school, socio-relational resources, ecological systems approach

투고일: 2021. 5. 21, 심사일: 2021. 7. 23, 심사완료일: 2021. 8. 10

* Korea University, Master's program

** Kore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boralee117@korea.ac.kr